



진안경찰, 경·군 합동 대테러 훈련

진안경찰서(서장 주현오)는 10일 안전면 용담에서 폭발물 테러 사건을 가상해 경·군 합동으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5월에 전라북도 일원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기간 대테러 발생을 대비해 진안경찰서 긴급현장 상황반과 제773부대 1대대 등이 참여해 국가중요시설 및 경기장에 대한 테러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매뉴얼에 의한 초동조치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상호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현오 서장은 "마스터스대회 기간 중 국가 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 순찰 강화, 주기적인 대테러 훈련을 실시해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남원지사협,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온라인 챌린지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경식, 하정섭)는 1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위원과 관계기관 종사자 등 30여명이 참석,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식 개선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온라인 챌린지 캠페인은 SNS를 통해 오는 4월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홍보 등 공익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경찰,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10일 업무 유공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1분기 지방서러운 고창경찰에 선발된 해리파출소 안종호 경감은 실종된 차매노인을 신속한 수색으로 조기 발견하고, 평소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과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 5명을 검거한 유공이며, 여청계 김대근 순경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언론보도로 치안민족도 향상과 지역안전 예방 정보활동과 신상정보 대상자를 면밀히 관리한 유공 등 믿음직한 경찰로 다가서며 경찰의 기본서명에 충실히 이행한 공로가 인정됐다.

수사와 수사2팀 김태우 경장은 1분기 고소·고발 사건 등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하는 사건을 관리하며 민생치안 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진안군, KBS 전국노래자랑 공개 녹화 성료

진안군(군수 전준성)은 지난 8일 진안역사박물관 앞 특설 무대에서 열린 KBS 전국노래자랑 진안군공개 녹화가 주민 및 관광객 등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KBS 전국노래자랑은 국내 최장수 예능 프로그램으로 2012년 이후 11년만에 4번째로 진안군을 다시 찾았다.

공개 녹화에는 앞서 6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1.2차 예선을 거쳐 선발된 15팀의 출연자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끼를 맘껏 표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민 기자

“완주·전주 통합, 선택 아닌 필수”

완주·전주 통합 청장년추진위 출범, 통합 밑거름 활동

완주와 전주의 청장년들이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전주·완주의 통합을 외친 '완주·전주통합 청장년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완주·전주통합 청장년추진위원회는 최근 완주전주통합청장년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선목·임윤정씨를 공동대표로 하는 발기인 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완주·전주통합 청장년추진위원회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청장년들의 모임으로, 총 회원수가 70여명에 달한다.

총회 참석자들은 민정일치로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위원회 활동에 나침반이 될 정관을 심의했다. 정관에 따라 앞으로 위원회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에 따른 완주·전주 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통합을 추진한다.

또 과거 하나였던 완주·전주의 정체·정통성을 되찾고, 양 지역에 산재한 자원 등을 연계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외연을 확장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통합에 앞장설 방침이다.

위원회는 취지에 공감하는 회원, 멘토단과 함께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위원회 출범부터 통합의 목소리에 다수의 완주·전주 주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 회원 전원이 미래를 이끌어갈 3040 중심으로 미래세대가 주축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생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히 우수대·전주대 총학생회장이 발기인으로 등



참했고, 통합을 염원하는 완주(28명)와 전주(58명)의 주민이 정회원으로 참여했다.

뜻을 같이하는 도의원과 시의원, 교수, 소상공인 단체 등이 멘토단으로 참여해 통합의 필요성을 완주·전주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김선목 완주·전주통합 청장년추진위원장은 "과거 하나였던 완주·전주가 둘로 갈라져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정체성과 전통성도 잃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회복하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 지역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양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대학생들이 직장과 미래를 위해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고 공동사업을 발굴하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위원회가 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청장년 참여를 늘려 미래세대, 우리 자녀들이 양질의 직장을 갖고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행복한 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태 기자



무주경찰, 1분기 주요업무·종합성과보고회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유봉현)는 최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각 과장, 계·팀장 및 파출소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치안종합성과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치안고객만족도, 체감안전도, 직무만족도, 인권 수준향상 방안 관련 현황 및 권서지표와 기능별로 추진 중인 36개 부서지표 등을 분석하여 무주군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유봉현 서장은 "각 부서의 성과지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해야 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무주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 신대인농협, 행복나눔이 반찬나눔 봉사

정읍 신대인농협(조합장 황휘중)은 최근 행복나눔이 회원들의 참여로 2023년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70여 농가에 계절김치와 밑반찬을 정성스레 준비해 전달하고 인부를 살렸다.

황휘중 조합장은 "매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행복나눔이 봉사단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작은 정성이 모여 행복이 되고, 어려운 이웃분들에게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나눔사업에 실천하는 신대인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석상신 우성트레이드 대표이사, 무주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주)우성트레이드, (유)우성트레이드의 석상신 대표이사가 10일 무주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5백만 원을 기탁했다. 석 대표이사의 이날 기탁은 5백만 원 기탁 기부자 가운데 여덟 번째 주인공이 됐다.

석 대표이사는 "무주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전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이 무주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한 변화와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을 믿는다"라며 "기부자분들께 살기 좋은 무주로 보답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군의회, 매산초 학생 30여명 대상 어린이 의회 체험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0일 대신면 매산초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의회 체험을 진행하였다.

어린이 의회는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으며 지난 주 무장초를 시작으로 이날은 매산초 학생들이 함께 하게 됐다.

임정호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자치에서 의회는 '뿔뿔리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며 민주주의의 핵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며 "여러분은 고창군 내이가 우리나라의 기둥이요, 보배임을 생각하면서 항상 건강하고 또 꿈을 안고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이가 되자"고 격려했다.

이날 직접 1일 강사로 나선 지역 선배 오세환 의원은 "의회는 군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피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범인 조례를 만들기도 한다"고 의회



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의 눈 높이에 맞추어 설명하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생활·친구문제 등 관심사항을 주제로 흡사 고창군의회가 열린 것처럼 토론과 질의·응답, 건의사항 등 열린 회의를 진행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덕진경찰,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산업기술 유출 및 전화금 용사기 예방을 위해 10일 전북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주요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대해 홍보하며 산업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니만큼, 지역 중소기업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무사상대 하이라인 구축 관련 자료 공유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 편취 등 전화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전단지 배부하는 등 예방활동을 병행했다. /이경아 기자



완산소방서, 공직자 기본소양 함양 직장교육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친절한 민원인 응대 화법 및 자세 등의 '직장교육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10일 가졌다.

이번 직장교육훈련은 공무원으로서 청렴 생활화, 청렴도 제고 등 기본이 바로 선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며 친절한 민원 응대 능력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소방서 내근 및 현장대응단, 센터, 구조대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민원인 친절 응대 및 민원 발생 사전 차단 을 위한 친절 교육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및 여성 민원 대처 방법 교육 △고객 감동을 늘리는 공감소통 화법 △민원 응대 자세 교육 △음주운전 근절 교육 등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병무청, 1분기 모범 사회복무요원 선발 격려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권대일)은 도내 2023년 1분기 모범 사회복무요원 6명 선발, 포상한다.

이번 모범 사회복무요원들은 노인요양원,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 복무기관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복무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됐다.

권대일 전북지방병무청장은 "도내 지역 곳곳에는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으며, 이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위아원, '행복한가게 마라톤 대회' 참가비 기부

청년 자원봉사단 '위아원'(We Are One, 대표 홍준수)의 1천여 명 회원들이 소의계층을 위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1,140만 원의 기부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회원들은 9일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소의계층 돕기 제 10회 행복한 가게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행복한 가게 마라톤 대회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으로, 참가자 30명 이상의 단체와 소의 계층 1명을 매칭해 참가비 100% 전액을 장학금으로 전달한다.

이번 대회에는 위아원 내 달리기를 좋아하는 회원들의 모임인 '위아런'(We Are 'Run')에서 총 1,140명이 참가했다. 이번 마라톤 대회 참가비로 마련된 장학금 1,140만 원은 전액 소의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홍준수 위아원 대표는 "마라톤을 통해 기부할 수 있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이번 마라톤대회에 위아원 회원들과 참여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함께 될 수 있다는 에너지와 용기를 전달하고 러닝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